濟州島方言의 接尾辭 硏究

-特히 {-tŭre}를 中心으로-

姜 根 保

I

1.1. 濟州島方言이 他地方의 方言과 激甚한 差異를 나타내는 要因의 하나는 分裂되기 以前의 言語狀態를 維持하는 데 있다. 音韻이나 語彙에서도 그러하려니와, 特히 派生接尾辭·格接尾辭等 形態論的 領域에서는 더욱 顯著한 것으로, 屬格·與格의 {-ne}[1]와 與格의 {-sindi}, 呼格의 {-massŭm}[2]等은 濟州島方言(以下 方言)만이 가지는 唯一한 形態史의 資產이며, 여기서 展開의 主眼이 될 格接尾辭 {-tŭre} 亦是 同値의 關係에서 指摘되는 資料에 屬하는 것이다.

特히 {-tŭre}는 音韻論的 制約에 依한 異形態{-re}를 가지고 있는 바, 이에 對한 論述이 李崇寧博士의 '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 硏究'[3]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本考는 方言의 格形態의 대강을 살펴서 {-tŭre}의 一般性을 確認한 다음, 이를 中心으로 하여 密接한 關係가 있다고 믿어지는 形態素의 機能 및 語彙的 分布를 記述함으로써 그 特性을 밝히고, 文獻語에 依據하여 {-tŭre}의 形成을 照覽하고, 그 層位를 밝히고자 한다.

1.2. 다음 原語民의 談話連續体를 실어[4] 曲用形에서 格形態를 가려 나누고, 標準語와의 差異와 {-tŭre}의 性格을 瞥見하여 本考의 展開와 理解에 도움을 얻고자 한다.

⑥ ③ ①
옛날 전당 낭으로 그 섭을 싸여짼 홉디다. 해경 아니 허여서 사람 안 살 때 이제 좁수베에가 애기
③ ④ ③
업게 ᄃᆞ란가네 ᄒᆞ난 ᄒᆞᆫ 사흘을 영 오지 못ᄒᆞ연 마씀. 거기 잇단,밥이 애기 어멍이 꿈을 꾸는데, 이
③ ① ③ ⑧
제 저 처년 놔두엉 가야 너네들이 곱게 가지, 그 처녀 아니 놔두엉 가민 바당에서 파도 씨여서 가질

1) 拙稿,"屬格{-ne}의 硏究", 논문집 제8집, 제주대학, pp. 11~27
3) 拙稿," 濟州島方言語彙考(二)", 國文學報 제7집, 제주대학 국어국문학회, pp. 29~51
3) 李崇寧, "濟州島方言의 形態論硏究', 國語學論攷, 東洋出版社, 1960. pp. 302~307
4) 濟州道 南濟州郡 大靜邑 馬羅島「處女堂 傳說」
口述者:大靜邑 加波里 73番地,尹順花 (57歲, 女),農業,1974. 8. 27. 採錄

못ᄒᆞᆫ덴 마씀, 쎄영 가지 못ᄒᆞᄂᆞᆫ데 잘 생각허렌 허난, 이제 그대로 저 사공(沙工) 들안티영 꿈을 그대로 용한귀여지더라고,이제 우리 아기업겔 아니 놔두엉 가민 가지 못ᄒᆞᆫ다고 이제 선몽(現夢)을 드렸는데 어멍 ᄒᆞ민 좋느닌 ᄒᆞ난, 서로 의논 (議論)적입주게. 간 사람들을 기영 ᄒᆞ난, 그대로, 아이구 게민 ᄒᆞᆫ 사람 죽느냐, 우리 목숨을 다 죽느냐 허연 ᄒᆞ난, 우리 어멍 허영, 그 처녀 ᄒᆞ나만 놔두엉 가자고. 이제 뒷날은 파도(波濤)가 잔잔허여서 다 베(船)에 올라십주. 가으두 ᄀᆞ찌 오를 젓 아니우까. 이제 가일 메어두고 오젠 ᄒᆞ난 허구, 저 우리 이서난 디 아기 지성귀영 아기 사발이영 놔두언 와시메 그딜(其處) 강 가지고 오렌,가안 아무 멋도 모르고 기영 의논 춤 도라짠 줄 모르고 휘딱 네련 그딜 채 못 가메 오꼿 싹 호미 준비 (準備)햇단 닷줄 딱 그찬 확하게 벤 떠나브난, 아이구, 가다가 돌아산 베레난, 베(船)는 언마간 떠나블고 이제 떠난 그대로 헐 수 없이 베가 불러도 역부러 기영 헌 거난 가도 아니허고 ᄒᆞ난 높은 동산에 삿단, 그데로. 뒷헤에 간 보난 그디서 죽언양 ᄆᆡ끌만 그자 시연 솔끼녕이도 엇고, 아무것도 엇고 ᄆᆡ(骨)만 남아시난,이젠 다음에 거기 해경해서 사람이 살게 되나네, 춤 본향당을 모셔십주게. 그 처녀당(處女堂)을 모셔십주게. 그 처녀당을 모션 ᄒᆞ난 그자 불펜(不便)ᄒᆞᆫ 일이 잇꺼나 아으들이라도 쫏기나 어멍허여 가민, 그디 가오민 펜안(便安)험니다. 우리도 그디 살아나난 허난 원체 ᄆᆞ음세가 좋은 처녕구라, 당을 츠지ᄒᆞ난 기엉ᄒᆞ난 ᄒᆞᆫ 덜에 ᄒᆞᆫ 번씩은 뎅깁니다. 그디 사는 분들이 살 ᄒᆞᆫ 되 이녁 정성허여그네 아이들이 불펜해여 가도 허영 가곡 집이 먼 나뿐 꿈을 뀌어져도 가곡 허영 허민 거긴 문짝 돌아가멍 섣덕이라도 예 아으들이 ᄒᆞᆫ 번도 멀어져보지 아니햇수다. 거기 산 후에 애기업게할망 이메도 춤 ᄆᆞ음씨가 좋은 할멍인구라 기영 ᄒᆞ연 우리도 그디 살 멘 ᄒᆞ 돌에 ᄒᆞᆫ 번씩은 이녁 정성ᄒᆞ영 뎅견 살앗수다. 쏠이나 메 ᄒᆞᆫ 귀 허여강 오민 이녁 먹을 거 아니우까. 그디 낭더를 다 불 케완 비여 냇겨부러십주. 불 지더십주. 누게사 불 케와신디. 그디 베염(蛇)멀도 칠성 베염이 잘못ᄒᆞᆫ 일 시난 귀양 보네연 그디 간 사라젠. 그디 간 살단 낭(木)불 부찌난 문딱 산방산(山房山) 앞드레 문 갓젠 말이 십디다. 어디서사 귀양 간디 귀양 갓다네 불 부찌브난 그 발라 문 휘연 나와젠 ᄒᆞᆸ디다. 베염이 영 어십주, ᄒᆞᆫ 머리도. 호수(戶數)는 이십 호(二十戶)됩니다.

談話体에 나타난 曲用形들을 分類하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① **主格**

-이 : 너네들이 (너희들), 사람이 (사람이), 분드리 (분들이), 칠성 베염이 (칠성 뱀이)

-가 : 파도가 (波濤가), ᄆᆞ음세가 (마음씨가)

省略形 : 간 사람들, 우리, 사람

② **主題格**

-은 : 뒷날은

-는 : 베(船)는, 호수(戶數)는

③ 對格

-을 : 그 섬(島)을, 꿈(夢)을, 처녀당(處女堂)을, 낭ᄆᆡ를(나무들을)

-ᄅᆞ : 가일(그 아이를), 그 딜(거기를)

省略形 : 애기업게 ᄃᆞ란가네(업저지를 데리고 가서),저 처녀 놔두엉 가야 (저 處女를 버려 두고 가야), 닷줄 딱 그찬 (닷줄을 딱 끊고),호미 준비헷단 (낫을 준비해 두었다가),메 ᄒᆞᆫ 귀 허영 강 오민 (메 한 그릇 차리고,다녀 오면)

④ 處格

-이 : 밤이(夜에)

-에 : 동산에, 베에 (舟에) , 뒷헤에 (明年에)

⑤ 向格

-드레 : 산방산 앞드레 (山房山 앞쪽으로)

⑥ 造格

-으로 : 낭(木)으로

⑦ 與格

-안티 : 사공들안티 (沙工들에게)

⑧ 在格

-에서 : 바당(海)에서

⑨ 共同格

-영 : 신발이영 (신발과)

위 分類에서本島方言의 格形態는 標準語의 形態와 一致되는 것과 本島方言에서만 드러나는 向格 {-tŭre}와 與格 {-anthi},그리고 共同格의 {-jəŋ} 等으로 나타난다. 또한, 頻度數에 있어서는 이른바 基本格이 優位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格形態일수록 標準語와 一致를 보이고 있으며, 特殊格 乃至 後置詞의 性質을 띤 格形態는 獨特한 方言形으로 形成되고, {-tŭre}에서 顯著하다.

Ⅱ

2. 1. {-tŭre}가 遂行하는 機能과 運用에서 特徵지어질 素性이 무엇인가를 排列關係에서 漸次記述하기 위하여 우선 人稱代名詞에 連結하는 形式에서부터 살피기로 한다.

1人稱 : 나, 저, 제

2人稱 : 나, 느, 자네

3人稱 : 야이(이 아이), 가이(그 아이), 자이(저 아이)

共通稱 : 지(그대 · 너 · 자기), 이녁(그대·이편)

不定稱 : 누게(누구), 아무게(아무)

위는 代名詞 가운데서 平待나 下待에만 使用되는 人稱代名詞를 例示한 것이다. 이 代名詞들과 {-tŭre}와의 連結關係를 보면, 人稱代名詞에는 {-tŭre} 形態가 後接되며 異形態의 交替形을 가지고 있다.

나 (我) + { tŭre, l-tŭre, sindŭre, l-gᴐra, anthi, anthŭre }

交替形인 {-sindŭre/kᴐra/anthi/anthŭre}는 標準語의 {-ege}와 同一한 機能을 가진 形態로서 {-tŭre}와의 交替는 隨意的인 것이다. 그리고 三人稱이나 共通稱에서는 {-tŭre}와 {-sindŭre}의 言述이 並用된다. 따라서 人稱代名詞에 連結되는 {-tŭre}는 統辭的 機能으로 보아 與格形態의 {-ege/tərə}와 一致하고, 形態도 {-tərə}와 類似하여 매우 暗示的인 것이다.

그러나, 先行되는 體言이 指示代名詞인 言述에 있어서는 人稱代名詞에서 任意的으로 連結되는 格形 {-tŭre}의 運用關係와 相當히 差異를 드러내는 것이다. 곧 處所의 指示를 意義素로 하는 {이디/그디/저디} 等의 代名詞에는 {-tŭre}는 連結되지 않는다. 이것은 사람 또는 生物에 關한 名詞에만 붙어 쓰이는 素性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方向의 代名詞인 {이레/그레/저레}에도 連結되지 않으면서 事物일 적에는 「이것+드레/그것+드레」와 같이 受用이 可能함을 나타낸다.

2. 1. ① 이것드레 ᄀᆞ를랑 더러불라.(이것에 가루를 덜어 버려라.)

② 이것드레 담아불라.(이것에 담아 버려라.)

③ 저것드레 비아두엉 가키여.(저것에 쏟고 가겠다.)

이 言述의 形式에서 {-tŭre}의 文法的인 機能은 處所의 表示를 負擔하고 있는 것이며, 人稱代名詞의 曲用에서 {-tŭre}가 가지는 與格的인 用法과 共存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發活形式에서 敍述語와의 關係가 規制되어 있는 것은 當然하다. 即 處格表示의 形態로서 {-tŭre}는

'담다·비우다·놓다' 等 處置關係를 나타내는 動詞의 支配를 받으며, 또한 對格{-ㅣ}을 支配하고 있다.

한편 與格으로서의 {-tŭre}도 '날드레 ᄀᆞ르라 /야이드레 ᄀᆞ라불라' 等에서 對格의 支配는 同一하나, 動詞의 支配는 語彙項目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即 위의 例에서 '담아불라'를 '비아불라'로 代置가 可能하나 'ᄀᆞᄅᆞ불다'로 代置는 不可能하다. 이와 같이 發話의 構成要素間의 依存關係,即 變形文法에서 말하는 意味的 共起關係가 다르다.

이로써 보아 {-tŭre}의 形態結合은 「人稱代名詞+드레」와 「事物代名詞+드레」의 構成으로 言述되고, 그 作用關係는 前者에서 與格的인 職能을, 後者에서는 處格的인 職能을 遂行하고 있는 것이다.

2.2. 한편 先行하는 要素가 代名詞에 限하지 않음은 다른 格形態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名詞를 先行語로 하는 統辭的 構成에서 {-tŭre}는 어떠한 職能이 賦與되며, 代名詞의 結合과는 어떠한 差異가 있는가를 다음에 살피기로 한다.

2.2.① 동(東)드레 ᄃᆞ르라.
② 서(西)러레 가사 살아나키여.
③ ᄆᆞ실(村)르레 내뻬여라.
④ 동네(洞內)레 드러가라.

윗例의 「東+드레/西+러레/ᄆᆞ실+르레/洞內+레」의 {-tŭre/rəre/rŭre/re}는, 行動이 指向하는 目標를 나타내는 向格의 表示로 體言에 後接하고 있으며, 動詞는 'ᄃᆞ르라(走)·가사(行)·내뻬여라(逃)·드러가라(入)' 等과 같이 行動動詞가 後行하고 있다. 한편,

2.2.⑤ 곡석이란 고팡드레 놔두라. (穀食이랑 庫房에 保管하라.)
⑥ ᄀᆞ를드레 ᄒᆞᆫ디 섞으카? (가루(粉)에 같이 섞을까?)

와 같이, {-tŭre}에 處置關係를 나타내는 動詞가 後行하더라도 亦是 向格의 機能을 表示하고 있다. 이것은 '고팡에·ᄀᆞ르에'等과 같은 發話의 「體言+에」는 固定된 空間的 位置의 表示로 意識되어 {-tŭre}가 後接한 構成과는 區別되기 때문이다.

特히 'ᄀᆞ를(粉)'은 本島方言에서 {ᄀᆞ를/ᄀᆞ루/ᄀᆞ르/ᄀᆞ로} 等의 形態가 共存하며, 語意를 달리하는 {ᄀᆞᆯ리} (사금파리를 부수워서 가루로 만든 것)와 {ᄀᆞ레/ᄀᆞ래}(멧돌)가 言述된다.이들은 {ᄀᆞ를}(粉)이나 {ᄀᆞ레},{ᄀᆞᆯ리}의 {ᄀᆞᆯ}을 語基로 하여 接尾辭가 結合한 形態로 分析될 것이나, 語源的

인 形式은 「ᄀᆞᆯᄋᆞ」[5]「ᄀᆞᆯᄅᆞ」(ᄀᆞᆯ리)의 構成이므로 李朝文献語와는 一致한다.

한편, {ᄆᆞ레/ᄀᆞᆯ리}도 {ᄆᆞᄅᆞᆯ}과 같은 格形態의 交替를 취하고, {ᄆᆞ레드레/ᄆᆞ레레/ᄀᆞᆯ리드레/ᄀᆞᆯ리레} 等의 構造的인 意味도 共通性을 示顯하고 있다.

이와 같은 {-tŭre}의 分布는 形態的으로 類似한 'ᄆᆞᄉᆡᆯ(村나들이)·ᄆᆞᄅᆞᆯ(용마루)·ᄆᆞᄋᆞ니ᄆᆞᄅᆞᆯ(地名)' 等의 語幹에 있어서도 {ᄆᆞᄉᆡᆯ르레/ᄆᆞᄉᆡ레/ᄆᆞᄅᆞᆯ르레/ᄆᆞᄉᆡᆯ드레}와 같이 {-tŭre/rŭre/re}가 各各 그 環境을 달리하여 나타나고 있다. 即 先行要素의 末音이 子音인 環境에서는 {-tŭre}가 連結되고, 母音아래서 {-rəre}와 特히 /i/母音 아래서는 {-re}가 나타난다. 그리고 子音 중에서도 /l/ 받침 아래에서는 {-rŭre}가 連結되는 一般性이 確認되는 것으로, 換言하면 排他的인 分布關係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名詞에 連結하는 {-tŭre/rŭre/re}는 同一한 形態素로 묶을 수 있으며, {-rŭre/re}는 {-tŭre}의 異形態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다. 前說한 人稱代名詞에 後行하는 {-tŭre}와는 그 結合하는 形態에서 差異를 露呈하고 있는 것이며, {-tŭre}가 구실하는 意味的 機能으로서도 두 가지의 用法이 並存함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이는 機能의 分化를 意味하는 것이라 하겠다. 即 與格의 表示는 人稱代名詞에 {-tŭre}가 後行되고 處格·向格을 表示할 때는 先行要素가 事物代名詞·名詞에 限定되며, 格形態는 {-tŭre}와 그 異形態인 {-rŭre/re}가 後行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tŭre}는 與格·處格·向格 等의 여러 機能으로 通用되는 格形態의 하나에 屬하는 것으로 方言的 獨自性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2.3. 代名詞·名詞에 結合하는 {-tŭre}가 數代名詞에서는 어떠한 구실을 機能으로 하는가에 對하여 다음에 살피기로 한다.

2.3. ① ᄒᆞ나레 ᄒᆞ날 노ᄒᆞ믄 멧게고?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몇이냐?)

② 서른둘드레(르레) 쉬는 노믄 모르커냐? (서른둘에 쉰을 더하면 얼마인지 모르겠느냐?)

② ᄋᆞ든드레 아ᄒᆞᆫ이문 멧이고? (여든에 아ᄒᆞᆫ이면 몇이냐?)

④ 늘랑 첫번ᄎᆡ레 아지라. (너는 첫번째에 앉아라.)

⑤ 날랑 두ᄎᆡᆺ번드레 가보키여. (나는 두번째에 가보겠다.)

例 ①~③은 「基數詞+tŭre/re/rŭre」의 構成의 發話形式이고, ④와 ⑤는 「序數詞+re/tŭre」의 構成으로 區分될 수 있으나, 結合에서 共通的인 性格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곧 {-tŭre}의 先行語의 末音이 序數詞나 基數詞에서 같으며, 前說한 代名詞·名詞와가 同一할 뿐 아니라 그 異形態들의 環境과도 同軌인 것이다.

5) 安秉禧, "韓國語發達史", 韓國文化史大系 Ⅴ,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67, p. 578

이와 같이 格形態의 連結이 先行하는 体言의 語末音에 對하여 一定한 環境을 要求하는 共通性을 지니고 있으며, 數詞에 結合한 {-tŭre}의 表示하는 機能에 있어서도 名詞에서와 같이, 標準語의 {-e}에 同一하다. (例 : 2.3.①,②,③). 그리고 {-e}는 本島方言의 處格形인 {-i}의 구실과 一致한다.

2.3.⑥ 집이서 일허염쩌 (집에서 일하고 있다.)
⑦ 집이 잇수다. (집에 있읍니다.)

2.3.⑥에서 {-isə/esə}의 /i/, /e/와 같이 2.3.⑦의 方言形의 格形態 {-i}는 標準語에서 處格{-e}로 實現된다. 따라서, 基數詞나 序數詞에 結合하는 {-tŭre}形은 處格{-e}의 機能的 意味를 表示하는 것으로 'ᄒᆞ나레'는 '하나에'에 該當한다. 이리하여 {-tŭre/rŭre/re}는 先行하는 体言이 人稱代名詞냐 數詞냐 等의 區分에 따라 {-ege/e}로 나타난다. 이 경우 {-e}는 '어데/어디'等 即 固定된 空間的·時間的인 位置를 나타내고 있으며, {-ege}는 一般的으로 賦與·指向·受持·關心等의 對象을 드러내는 意味로 言述되고 있는 것이다.

2.4. 前說한 바와 같이 「名詞+tŭre/i」의 統辭的 構成에 있어서 格形態 {-tŭre/i}는 標準語의 {-e}와 一致하는 發話形式이 있는 한편, 機能的으로 相馳하는 形式이 있어서 「數詞+tŭre」와는 다르다.

2.4.① 난 밧디 가쿠다. (저는 밭에 가겠읍니다.)
② 난 밧드레 가쿠다. (저는 밭쪽으로 가겠읍니다.)

밭(田)에 後接하는 格形態 {-tŭre}는 {-i}로 代置가 可能하며, 또한 2.4.①,②의 語意는 大差가 없는 것으로 使用된다. 그러나 {-tŭre}와 {-i}는 각각 그 特徵이 同一한 語彙項目이 後行하는 경우에도 나타난다.

即 2.4. ①,②의 發話場面은

問① 늴 어디 가젠 허염시니? (내일은 어디 가려고 하니?)
答 늴은 밧디 가쿠다. (내일은 밭에 가겠읍니다.)

와 같이 '어디(何處)에 歸着하느냐' 하는 動作의 到着點이[6] 言述에 담긴 語法的 意識의 表現으

6) 李承旭, 國語文法体系의 史的硏究, 一潮閣, 1973, pp. 74~75

로 {-i}가 名詞에 結合되고,

問② 어드레 (어디레/어데레) 감쑤가? (어디 가십니까?)
答 밧드레 감쑤다. (밭으로 가고 있읍니다.)

問 ②에서는 到着地의 向方이라는 動作性을 積極的으로 띤 動詞에만 呼應한다. 이것이 行爲者의 言述에서 {-tŭre} 格形態가 {-i}보다 優勢하게 選擇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디}에는 {-i}가, {어드레}에는 {-tŭre/rŭre/re}가 名詞에 結合되어 前者는 標準語의 處格 {-e}에, 後者는 {-e}보다 向格 {-ro}의 機能으로 쓰여진다.

{-ro} 形態는 一次的인 機能은 造格으로, 第二次的으로는 向格으로[7] 說明이 되어지며, 또한 器具格으로서 器具·道具·材料·方便, 더러는 理由를 보이는 토[8]로 處理하고 있듯이 機能이 같은 形態를 維持하면서 多樣하게 表示되는데, {-ro}에 代置할 수 있는 {-tŭre}는 造格으로는 전연 言述되는 일이 없고, 오직 標準語의 {-ro/lro/ŭro}가 方言形으로도 共히 나타난다.

2.4.③ 낭으로 집 지섬쩌. (나무로 집을 짓는다.)
④ 밥으로 배 ᄀᆞ득엿저. (밥으로 배를 가득 채웠다.)
⑤ 무시 걸로 허염디? (무슨 것으로 하고 있나?)

이와 같은 {-tŭre}의 結合과 機能에서 {-i}나 {-ro}와 確然하게 區別할 수 있는 言述形式으로는 다음과 같은 例도 들 수 있다.

2.4.⑥ 가이 집이 시카? (그 아이 집에 있을까?)
⑦ 가인 집이 싯수다. (그 아이는 집에 있읍니다.)

에서 '집이'의 {-i}는 {-e}의 方言形으로서 固定된 空間的 位置를 드러나게 하는 것임은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 때의 {-i}는 「집+tŭre」와 같이, {-tŭre}形態로 代置는 不可能하다. 後行하는 動詞 '시카/싯수다'가 存在的 性質을 띠어서 一定한 格을 취하는 데서 오는 制約인 것이다. 곧 方言에서 {잇다/싯다} 等의 形態로 나타나는 {있다}는 處格만을, 先行하는 体言에 連結케 하여 이른바 共起關係가 成立되는 것이고, 向格이나 與格은 受容하지 않는다. '그애 집으로 있을까?'가 非文임과 같이, '가이 집드레 시카?'도 方言에서 言述되는 形式이 아니며, 또한 '낭으로 맨든다 (나무로 만든다)' 의 {-ŭro}形態를 {-tŭre}로 代置할 수도 없다.

7) 李崇寧, 中世國語文法, 乙酉文化社, 1961, p. 102
8) 崔鉉培, 우리말본, 正音社, 1941, p. 850

따라서 {-i}는 윗例에서는 處格을 나타내어 向格 구실의 {-tŭre}와는 構成에서 對立關係가 形成된다. 한편 앞에서 指摘한 處格의 表示와 主格形으로서의 {-i}는 本島方言에서 省略形·短縮形도 아울러 나타나는 것이다. (例 : 돈(錢), 돈이 : 가마(轎), 가매)

이와 같이, {-tŭre}形態는 {-i}가 表示하는 處格에서 後行하는 動詞와 先行詞를 共有하는 것이다.

2.5. 以上 {-tŭre}가 曲用에서 峻別되는 文法的 素性의 一面에 對하여 叙述한 셈이 되겠으나 이는 다만 先行語인 体言과의 關係에서, 그리고 後行하는 叙述語와의 關係에서 살폈을 뿐이어서 그 全貌를 드러내기에는 未洽하다. 따라서, 다음에는 {-tŭre}와 結合하여 格形態의 구실을 하는 語形에 對하여 後接이 어떠한 要素들로 排列되는가를 用例로써 들어보면,

2.5.① 날드렌 무사 ᄀᆞ람디? (나에게는 왜 말하느냐?)
② 낭드렐 올라 갈티아? (나무에 올라 가겠느냐?)
③ 마당 드레도 아지라. (마당쪽에도 앉아라.)
정지레영 잘 보라. (부엌쪽에도 잘 살피라.)
④ 마리레랑 신 버성 오르라. (마루에는 신 벗고 올라오라.)
⑤ 집드레사 기별 못 허주. (집에는 기별을 못 하겠지.)

위에서와 같이 {-tŭren/tŭrel/tŭredo/reiəŋ/reraŋ/resa} 等 複合形이 先行体言에 後接하고 있는데, 이들 複合形態의 構成은 「tŭre+n/l/do/iəŋ/raŋ/sa」로 分析되는 것이다.

2.5.⑥ {-n} : 난 집이 가키여. (나는 집에 가겠다.)
⑦ {-l} : 늘 데령 가젠 ᄒᆞ난…(너를 데리고 가려 하니까.)
⑧ {-do} : 책도 가정가라. (책도 가지고 가거라.)
⑨ {-iəŋ} : 느도 나영 ᄒᆞᆫ디 글라. (너도 나와 함께 가자.)
⑩ {-raŋ} : 가이랑 집이 시렝ᄒᆞ라. (그 아이는 집에 있으라 하여라.)
⑪ {-sa} : 날드레사 ᄀᆞ라? (나에게야 말하겠는가?)

따라서 {-tŭre}는 結合하는 後行要素로 基本格이 連結되어 複合格을 形成하고 있다. 곧 {-tŭre}는 윗例의 主格·對格 等 以外에도 {-tŭrega/rega/tŭreman/reman/tŭrerado/rerado/tŭreen/reen}과 같이, 格形態가 結合되어 各各 格의 機能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屬格 {-ne}가 {-tŭre}에 後行하는 發話形式은 없다. 이제 {-tŭre}에 後接할 수 있는 格形態의 目錄

을 다음과 같이 圖示하여 連結關係를 要約하고, 다른 格形態와의 示差性을 밝힌다.

	ㅡ드레	ㅡマ롸	ㅡ신디	ㅡ만썩	ㅡ츠록	ㅡ안티	ㅡ이에	ㅡ로	ㅡ영광	ㅡ이서	ㅡ알롸	ㅡㄹ을ㅡ를	ㅡ부텀	ㅡ꺼장	ㅡ사	ㅡ아야	ㅡ도	ㅡ이라도	ㅡ흐곡	ㅡマ티
主題格 ·는·은·랑	드렌	マ론	신닌	만썩은	츠록은	안틴	이에는	로는	영은	이선	·	·	부텀은	꺼장은	·	·	·	·	흐곤	マ톤
對格 를·을	드렐	マ롤	신딜	만썩을	츠록을	안틸	엘	·	·	이설	·	·	부털	꺼장을	·	·	·	·	·	·
主格 이·가	드레가	·	·	만썩이	·	·	·	로가	·	·	·	·	부텀이	꺼장이	·	·	·	·	·	·
屬格 네·이	·	·	·	·	·	·	·	·	·	·	·	·	·	·	·	·	·	·	·	·
處格 이·에	·	·	·	만썩에	·	·	·	·	·	·	·	·	·	·	·	·	·	·	·	·
造格 로·으로	·	·	·	만썩으로	·	·	·	·	·	·	·	·	·	·	·	·	·	·	·	·
共同格 영·광	드레영	マ로영	신디영	만썩이영	·	·	이영	로영	·	·	·	ㄹ광	·	·	·	·	·	·	·	·
在格 이서	·	·	신디서	·	·	·	이서	·	·	·	·	·	·	·	·	·	·	·	·	マ서
向格 드레·디레·르레	·	·	신디레	·	·	안티레	·	·	·	·	·	ㄹ드레	·	·	·	·	·	·	·	·
與格 드레·신디·안티·안트레	·	·	·	·	·	·	·	·	·	·	·	·	·	·	드레사	·	드레도	드레라도	·	·
同伴格 알롸	·	·	·	·	·	·	이알롸	·	·	·	·	ㄹ알롸	·	·	·	·	·	·	·	·
出格 부텀	드레부텀	·	신디부텀	·	·	·	·	으로부텀	·	이서부텀	·	ㄹ부텀	·	·	·	·	·	·	·	·
限定格 꺼장	드레꺼장	ㅇ	신디꺼장	·	·	안티꺼장	이꺼장	으로꺼장	·	이서꺼장	·	ㄹ꺼장	·	·	·	·	·	·	·	·
特別格 사	드레사	マ라사	신디사	·	츠록사	안티사	이사	으로사	·	이서사	·	ㄹ사	부텀사	꺼장사	·	·	·	·	·	マ티사
相對格 신디·고라·안티	·	·	·	·	·	·	·	·	·	·	·	ㄹ신디	·	·	·	·	·	·	·	·
呼格 아·야·마씀	·	·	·	·	·	·	·	·	·	·	·	·	·	·	·	·	·	·	·	·

위의 連結表에서 提示해 주는 {-tŭre}의 結合의 特徵은 前說한 바와 같이 格形態가 制約이 있기는 하나, 後接하는 點과 아울러 先行하는 格들은 이 後接하는 格形態들을 共有하고 있어서 同一類로 묶을 수 있다. 그리고 後接이 不可能한 形態의 目錄도 一定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곧 {-kɒra/sindi/anthi/isə/ro}는 先行하는 格形態에 該當하는 것으로서, {-tŭre}와 同一한 格形態가 後行하여서 複合形을 形成하고 体言에 붙는다.

그리고 意味的인 面에서 이들 各形態는 相互間 共通性을 內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体言+tŭre/sindi/kɒra/anthi」의 構成이 敍述의 方向을 表示하므로, '어디'에 該當하는 要素가 되어 後行하는 動詞의 뜻을 限定하고 있으며, 「体言+ro」는 '언제'에 該當하는 時間表示이므로 機能的으로 副詞格을 形成하여 用言의 뜻을 限定하는 點에서 {-tŭre}와 같다. {-tŭren/sindin/kɒran/anthin}의 構成에서 後接한 {-n}은 그 支配語로 同一한 敍述用言이 後行하는 發話形式을 갖는다.

2.5.⑫ 날드렌 ᄀᆞ르라. (나에겐 말하라.)
⑬ 나안틴 ᄀᆞ르라. (나에겐 말하라.)
⑭ 나신딘 ᄀᆞ르라. (나에겐 말하라.)
⑮ 날ᄀᆞ란 ᄀᆞ르라. (나에겐 말하라.)

또한 {-l}이나 {-*i*əŋ}이 後接할 때에도 支配關係는 「나+anthil/sindil/tŭrel/kɒral+ᄀᆞ람쑤가?」, 「나+anthi*i*əŋ/sindi*i*əŋ/tŭre*i*əŋ/kɒra*i*əŋ+ᄀᆞ르라」와 같이, {-n}의 경우와 同一한 敍述用言이 後行하고 있으며, 이 複合格이 統辭上에서의 機能은 後接하는 格形態가 代表하게 된다.[9]

그래서 {-n}은 敍述의 主体가 되지 못하고 무엇과 比較하여 差異가 있음을 表示하게 되며, {-l}은 敍述의 客体임을 나타내는데 標準語의 意味機能과 同軌인 것이다.

그리고 {-*i*i*i*əŋ/*i*əŋ}은 共同格의 表示로서 '나영놀게/나하곡 놀게 (나와 함께 놀자)'의 發話形式이 있고, '밧이영 보앙 오라'의 {i*i*əŋ}은 添加의 表示로도 言述된다. 또한 比較의 表示로는 '느 신은 누게영 ᄀᆞ트커냐? (너의 신발은 누구와 같겠느냐?)'와 같은 例를 들 수 있다. '책이영 산 ᄌᆞ광… !(책이라고 산 끝이… !)' 에서는 標準語의 {-rosə}와 같은 資格을 表示하고 있다. 이로써 {-*i*əŋ/*i*i*i*əŋ}은 共同格인 {-wa}와 一致하는 機能이라 할 수 있겠으나, 統辭上의 排列에서 格은 先行할 수 없으므로 配合關係를 달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比較的 多樣하게 運用되는 {-*i*i*i*əŋ/*i*əŋ}은 {-tŭre} 格形態에 後接되어서도 機能의 領域은 同一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이러한 複合語에서 先行하는 格形態는 그 加意性이 더욱 두

9) 金敏洙, 國語文法論, 一潮閣, 1976, p. 164

드러지게 나타남을 알게 된다.

이제까지의 例를 要約하여 다음에 提示하면

a) 体言+{-tŭre/rŭre/re}+ㅁㅏ르(曰)+{-kha/ra/simin/khabŭn*i*e/sipčču/pssə}

b) 体言+{-tŭre/rŭre/re}+/l/+ㅁㅏ+(曰)+{-kha/ra/simin/khabŭn*i*e/sipčču/pssə}

c) 体言+{-tŭre/rŭre/re}+{-*i*əŋ/i*i*əŋ}+ㅁㅏ르라(曰)

위의 構成에서 先行하는 体言에 後行하는 格形態가 自由로이 交替됨을 보이고 있으나, a)·b)·c)의 構成形式間에는 包有한 意味가 相異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即 a)와 b)와를 對比할 때 b)는 叙述의 客体가 特定的임을 指示하고, a)는 名詞에 後行할 경우에 行動이 指向하는 目標를 나타내고, 人稱代名詞에 後行할 경우에는 어떠한 動作을 받는 位置를 나타낸다.[10] 그리고 目標란 '보고 가는 데(處所)와 쪽(向方)'을 뜻하는 것이며, 位置란 '받는 쪽'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면, 特定的이란 '보고 가는 쪽이나 데'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c)는 指向하는 目標의 順次的인 排列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a)· b)· c)에서 {-tŭre}에는 '곳'이나 '쪽'의 뜻이 內在하고, 後接의 {-l/*i*əŋ}은 辯別的 機能을 担當하고 있어서 後述할 本島方言의 格形態 {-sindi/sindŭre}와 {-tŭre}와의 代置가 可能한 緣由도 解明될 것으로 믿는다. 即 그 語形이 「곳+쪽」의 構成으로 分析되기 때문이다. 以上에서 格形態의 後接으로 複合形을 形成한 {-tŭre}의 統辭上의 排列 및 機能의 特徵과 先行形態로서의 加意的 性格을 살핀 것이다.

2.6. 이와 같이 体言에 後行하여 複合形을 形成하는 {-tŭre} 形態는 連結에서 特徵的인 結合形式을 가지고 있다. 即 이제까지의 格形態의 結合이나, 格의 表示로서 体言을 先行語로 하는 普遍的인 排列關係와는 달리 用言을 先行시켜 副詞的인 機能을 遂行하거나, 複合格을 形成하여 体言에 後行하므로써 與格의 機能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用言語幹+tŭre」의 關係를 더듬어 보기로 하겠다.

2.6.① 집이 사람 시냐? (집에 사람이 있느냐?)

② 사람이 집이 드러시냐? (사람이 집에 들었느냐?)

위 ①은 「用言語幹 si+疑問形語尾n*i*a」의 例示이다. {si-}는 存在를 나타내는 語幹으로 {sit-/isi/it} 等의 交替形을 가지고 있으며,[11] 15世紀 文献語 {isi-/si}와 一致함은 周知의 事實이

10) 崔鉉培, Op. cit., p. 847

11) 拙稿, "濟州島方言 '잇다' 活用考", 논문집 제4집, 제주대학, 1972, pp. 15~32

다. 例 ②에서의 '시냐'는 接尾辭「si」+「nia」의 連結로 分析되는 文法的 意味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虛辭化한{-sinia}의 語源的인 形態가 例 ①의 '시냐'임을 보이는 例인 것이다. 이와 類似하게 나타나는 性分의 轉化는 이에 局限되지 아니하여 다음과 같은 言述에서는 더욱 多樣함을 드러내고 있다.

2.6.③ 사람 신 줄 몰란 웨울르나? (사람이 있는 줄을 몰라서 외치느냐?)
④ 사람 신 딜 몰란 웨울르나? (사람이 있는 데를 몰라서 외치나?)

2.6.③은 {-si}의 冠形詞形에 方法이나 셈속을 나타내는 形式名詞가 後行하고 있는데 대하여 2.6.④의 例는 處를 뜻하는 名詞 {디}가 後行하고 있으며, 그 語意는 '있는 곳·있는 데'로 言述되는것이다. 이와 같이 排列되는 {디}는 '신 딜·신 디·신 디로·신 딘·신 디사'와 같이 自由로이 格形態를 後行시키고 있으며, 또한 先行한 {si-}用言도 冠形詞形語尾 {-n/l}을 隨意로 後接시킨다. 그래서 '신 디(있는 데)·갈 디(갈 데)·놀 디(놀 데)·간 디(간 데)'와 같이, 이른바「實辭+實辭」의 排列關係를 가지는 것이다.

한편, 用言의 語幹에 {-ndi}가 配合하는 活用形式이 普遍的으로 言述되는데, 이 경우의 排列關係는「實辭+虛辭」의 連結로 說明된다. 따라서 前揭의 '간 디·논 디·온 디' 等에 있어서 {디}는 다음의 例에서 보이는 것처럼,

2.6.⑤ 사람 신디 어신디 가보라.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가보라.)
⑥ 사람 신디 다시 와시냐? (사람이 있는데도 다시 왔느냐?)

「n+di」는 用言의 語幹에 後接하여서 連結語尾로 轉成된다. 그리하여 例 2.6.⑤의 {-ndi}는 '막연한 의문'의 뜻을 나타내고 있으며, 例 2.6.⑥에서는 說明形의 語尾로서 言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디}가 '곳(處)'의 語意를 가진 名詞로부터 語尾化한 것은 '存在'의 뜻을 나타내는 語幹 {si-}가 時相接尾辭로 轉化한 것과 文法化의 過程에서 同軌라 할 수 있다. 이로써 語源的인 意味를 喪失한 {si-}와 {ti}가 結合된 {-sindi} 形態는 格形態의 機能으로 轉成된다.

2.6.⑦ 어멍신디 ᄀᆞ르민 줄테이주. (어머님께 여쭈면 주실 것이다.)
⑧ 오라방신디 두렝 ᄒᆞ쿠다. (오라버니에게 주시도록 하겠읍니다.)
⑨ 반장신디 돈이영 쌀이영 다 내엿수다. (班長에게 돈과 쌀을 다 내었읍니다.)

윗例에서 {-sindi}는 常例的으로 쓰이는 與格 用法에 屬한다. 따라서 先行하는 体言은 人

稱代名詞·事物表示의 指示代名詞 그리고 人倫關係나 職名을 나타내는 名詞에 限定되며, 尊待의 區別이 없다. 後行하는 動詞도 授受의 意味內容을 나타낸다는 制約이 加해지는 것인데, 이에서 벗어나는 內容의 動詞가 後行하는 發話形式일 경우 {-sindi}는 '存在·處所'의 語意로 復歸하는 것이다. 곧 '아방신디 감쥬', '아덜신디 ᄃᆞ랏주' 에서의 {-sindi}는 '있는 데 (處)'의 文意가 內在한다. 그러므로 後行하는 動詞의 支配關係에서 派生된 變異가 與格의 用法이라 하겠다.

그런데 與格으로서의 {-sindi}는 「sindi+re」의 形態와 代置가 可能하고 이와 共存하는데, 다만 {-sindire/sindŭre}의 兩形으로 言述될 뿐이다. 그래서 上例는 '어멍신드레', '오라방신드레', '반장신드레'로 代置되더라도 構造的인 意味는 同一한 것으로서 先行하는 体言이나 後行하는 動詞도 {-sindi}와 一致한 連結關係를 維持하며, 與格的인 機能을 共有하고 있다.

이와 같은 {-sindŭre}의 機能을 同一하게 保存하는 要素의 用例를 들어, 類似한 格形態間의 構成形式上 어떠한 關聯性이 있는가를 살피기로 하겠다.

2.6.⑩ 가인 나안티(안트레) 又지 아니 ᄒᆞ여라.(그 아이는 나에게 말하지 아니하더라.)
⑪ 오래비안티(안트레/안티레) 두렝 허쿠다.(오라비에게 달라고 하겠읍니다.)
⑫ 반장안티(안트레) 다 내엇수다. (반장에게 다 내었읍니다.)

윗例는 格形態인 {-sindi/sindŭre}가 排列될 位置에 {-anthi/anthŭre}가 代置된 것으로 그 形態論的인 分析은 「an+thŭ+re/an+thi」로 되며, {-ti/tŭ} 가 音韻的 條件에 依하여 {-thi/thŭ}로 나타난 것이다. 곧 '안트레 (안쪽에)·바깟뜨레(바깥쪽에)·낭드레(나무에)'와 같이 前接한 形態의 末音에 따라 各各 다른 音으로 實現되고 있다. 先行하는 体言의 末音이 有聲音인 경우는 /tŭre/를 維持하나 破裂音·破擦音에서는 /ttŭre/로 發音된다. 그리고, /thŭre/로 實現된 環境은 '안칩(內屋)·안팟(內田)'과 같이 「안+ㅎ+tŭre」의 環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與格의 表示로 쓰여지는 {-anthŭre}의 {-an}이 '內'의 뜻으로 說明될지는 疑問이나 類似性으로 「体言+ㅎ+tŭre」의 構成으로 分析은 可能할 것이다.

이로써 {-ti/tŭ…}로 分析되는 {-tŭre} 複合格形은 一定한 語形을 거듭 前接시켜서도 同一한 格形態의 機能을 表示하는 連結上의 特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以上 2.1~6에 걸쳐 「体言+tŭre」의 構成에서 {-tŭre}가 表示하는 機能과 複合形態로서의 連結關係에서 그 特性을 記述한 것이다.

Ⅱ

3.1. 前項에서 {-tŭre}를 中心으로 하여 前後 形態의 排列과 그 機能에 對하여 特徵지울 수

있는 素性을 共時的 記述로써 抽出한 셈이다 그런데, {-tŭre}가 表示하는 與格의 구실은 標準語의 {-tərə}와 一致하고, 複合形式으로 본 {-anthi/anthŭre}가 運用하는 機能은 {-hanthe}와 類似하므로 {-tərə}, {-hanthe}의 方言形이 {-tŭre}, {-anthi}라는 說明이 可能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앞에서 記述한 {-tŭre}의 形成으로써 {-tərə}를 分析하기에는 疑問스러운 格形態이다.

따라서 本項에서는 文獻語에 根據를 두고 {-tŭre}로의 發達을 敍述하여 {-tərə}와의 關係와 通時的 特色을 밝히고자 한다.

3.2. 格接尾辭 {-tŭre}는 {-tere/tire/tərə} 等으로 나타나고, 異形態 {-rŭre/re}가 있다 함은 앞에서 敍述한 터인데 落着點處所格助辭로 分類되는[12] 標準語의 {tərə}는

저 사람—
그 애— +tərə → -tŭre/tere/tire/tərə
-sindi
-sindŭre
-anthi/anthire/anthŭre

위에서와 같이 先行하는 体言이 人稱代名詞나 사람에 關係되는 名詞인 경우 統辭上의 機能이 {-tŭre}와 一致한다. 그러나 이 밖의 体言이 先行하는 發話形式에 있어서는 {-tŭre}만이 後接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tərə}의 後接을 許容하는 對象은 有情物이며[13], {-tŭre}는 그 對象이 이에 限定되지 아니하고 事物에까지 擴大됨으로써 兩形態間의 差異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tərə}의 中世語 形態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目連이 ᄃᆞ려 니ᄅᆞ샤ᄃᆡ <月釋, 6:1>
菩提ᄃᆞ려 니ᄅᆞ샤ᄃᆡ <金剛經序, 7>
彭州牧ᄃᆞ려 爲ᄒᆞ야 묻노니 (爲問彭州牧) <杜解, 21 : 19>
내 너ᄃᆞ려 져기 말 무로리라 <老諺 · 上, 23>
流霞酒 ᄀᆞᄅᆞᆨ 부어 돌ᄃᆞ려 무른 말이 <松江, 關東別曲>
世子ㅣ 然友ᄃᆞ려 닐어 ᄀᆞᄋᆞ샤ᄃᆡ (世子謂然友曰) <孟解>

윗例의 {-tɒriə}는 人名·官職名·人稱代名詞 等을 先行語로 하여 動詞 '니ᄅᆞ샤ᄃᆡ', '묻노니'의 支配를 받고 있어서 現代語의 {-tərə}가 運用되는 統辭的 機能과 마찬가지임은 쉽게 理解되는 것이다. 그리고 方言形 {-tŭre}는 '目連이드레', '菩提드레', '彭州드레'와 같이 {-tɒriə}에 代置가 可能한 것이다. 그러므로 {-tŭre}는 {-tɒriə}가 定着되면서 獨自的인 言語環境에 依한

12) 崔鉉培, Loc. Cit.
13) 李承旭, Op. cit., p. 318

變化로서 方言形으로 굳혀진 것이라고 規定할 수 있을 법하다. 그러나 {-tŭre}는 前說한 바와 같이 先行하는 体言의 制約에서 오는 差異 以外에 前接하는 語源的인 用言으로 {-sin}이 있고, 体言的인 {-an}이 엄존하는 것으로 보아 動詞 '드리다(奉)'[14]의 副動詞形으로부터 文法化한 {-tɒrɨə}의 方言形으로 理解하기에는 難點이 介在하는 것이다. 이는 文法的 形態의 결합에 엄격한 規則性이 要求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統辭上 排列에서 一定한 分布를 維持하는 데 있는 것이다. 곧 「体言+tɒrɨə(奉)」의 排列과 같이, 用言의 冠形詞形 {-sin}에 後行하는 要素가 体言이라는 排列上의 問題인 것이다.

따라서 {-tɒrɨə}와는 그 分布와 表示되는 機能에서만 아니라 語源的인 發達에서 區別되어진다.

3.3. {-tŭre}를 分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觀點에서 本島方言의 指示代名詞를 提示하여 {tŭ}와 {re}가 서로 膠着된 形式이 아님을 보이기로 한다.

指示代名詞 { 場所 : 이디, 그디, 저디, 어디, 어드레, 아무디레, 아무드레
方向 : 이레, 그레, 저레, 어디레, 어드레, 아무디레, 아무드레

위에서 場所를 指示하는 代名詞는 距離關係를 나타내는 {이·그·저}에 {ti}를 後接하여 形成한 것으로 分析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方向代名詞는 「이+레/그+레/저+레」의 構成으로 理解되므로, 不定稱{어드레}는 「어(何)+디+레/어+드+레」의 結合인 複合形式임이 確然해지는 것이며, 여기에서 '어(何)'를 除外하면 「드+레」의 形態를 얻게 되므로, 결국 {이디}의 {디}와 {드레}의 {드}는 同一形態素인 것이다. 다음에 이 {디}의 用例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3.3. ① 이디 야이영 아자시라. (여기 이 아이와 앉아 있어라.)
② 가이 간 딜 나가 알아게. (그 아이 간 데를 내가 알 수 있나.)
③ 소낭 신 디 사람 싯수다. (소나무 있는 데에 사람이 있읍니다.)
④ 나 살 디가 어디우꽈? (내 살 데가 어디입니까?)

윗例에서와 같이 {디}는 指示代名詞에서 場所의 뜻으로 쓰여지고, 用言의 冠形詞形에 後行하여 場所·處所의 뜻을 가진 形式名詞로 使用되며, 이 경우 {디}는 標準語의 {데}로 나타난다. 그리고 {레}가 後續될 때는 {디}는 中舌音化하여 {드}로 바뀐다. 이와 같이 {디/데/드} 等으로 實現되는 体言的인 形態가, 標準語에서는 指示代名詞의 不定稱에서만 {어디/아무데/어떤데}와 같이, {디/데}가 결합된다. 따라서 다음에는 代名詞와 區別되는 不定稱의 文獻語를 例로 들고 方言의 用例를 補完하기로 한다.

14) 허웅,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1975, p. 348 安秉禧, Op. cit., p. 186

아모ᄃᆞ라서 온동 모ᄅᆞ더시니 <月釋, 2 : 25>
南山의 어ᄃᆞ메만 高學士 草堂지어 <古詩調, 鄭澈>
消渴ㅅ病ᄒᆞᆫ 모ᄆᆞᆫ 어더러 가리오 (病渴身何去) <杜重, 2 : 19>
이됴한 ᄇᆡ를 對ᄒᆞ야서 어드러 가리라 ᄒᆞᄂᆞ뇨 <杜解, 1 : 28>
내 어ᄃᆡ 가리오 <三綱烈, 3>
어듸 머러 威不及ᄒᆞ리잇고 (遂何地之而威不及) <龍歌, 47>

위에서 {어듸/아모ᄃᆞ/어ᄃᆞ메/어ᄃᆡ/어드/어ᄃᆡ} 等은, 方言形의 {어디/어데/어드/어ᄃᆡ}가 文献語의 形態를 그대로 維持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고, 아울러 處의 뜻을 가진 形態는 {ᄃᆞ/듸/드/ᄃᆡ/ᄃᆡ} 等임을 確然하게 한다. 이와 같은 多様한 形態로 因하여 方言의 場所代名詞도 「이+디(處)」로 나타나고, 格形態인 {-tŭre}가 {-tire/tere/təre}로 發話되며, 複合形態인 {-sindi}가 {-sindire/sindŭre/sindere/sindəre}로 發話되는 史的인 緣由는 勿論, {드/디/데/ᄃᆡ}가 內包된 語意가 '處'임이 確認되는 것이다.

3.4. 그리고, {-tŭ}에 後接하는 {-re}는 文献語에 있어서도

ᄂᆞ치 ᄒᆞᆰ무ᄐᆡ 이리 오샤 <金三, 49>
그리로 드러가니 <太平>

와 같이 方向代名詞의 {이리/그리}가 15世紀 中葉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러로 드러가리라 (入於此)<飜小八, 42>
또 더러로 오너라 <老諺 · 上, 52>
네 어드러 가ᄂᆞ니오 (子何之) <杜初 · 八, 6>

{이러/더러/어드러}도 15世紀 末葉에 보이는데, 이는 方言의 方向代名詞 {이레/저레/어드레}와 西北方言의 {누구라/누구래/내레/네레} 等의 用例와도 類似한 語形이다. 이들 {리/러/레} 等은 本島方言의 「洞內+re/tŭre」의 {-re}와 同一한 方向의 뜻을 나타내는 形態인 것이다. 이로써 方言形 {-re}는 15世紀 國語의 {-ra/ri}의 發達形임을 알 수 있겠으나, 그 以前에 對하여는 杳然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暗示를 주는 表記로

此良夫作沙毛北等良<禮敬諸佛歌>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祭亡妹歌>

에서 '此良', '此矣'가 指摘되어야 할 것이라 믿어서, 다음에 이를 살피기로 한다. 古歌의 注解에서 '良'字는 '아·야·어·여·애' 等 10종 以上으로 읽었으나 다음의 用例는 全部 /r(l)a/音의 讀法을 취하고 있다.[15]

法界毛叱所只至去良<禮敬諸佛歌>
一念惡中涌出去良<稱讚如來歌>
功德修叱如良來如<風謠>
迷火隱乙根中沙音賜焉逸良<恒順衆生歌>
佛前燈乙直体良焉多衣<廣修共養歌>

윗例에서 '至去良·出去良·逸良'의 '良'은 終結語尾 {-ra}의 表記이며 '修叱如良'에서 '良'은 願望法語尾 {-ra}의 表記로 본다. 그리고 15世紀의 文獻語에서도 같은 {-ra}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나라해 빌머그라 오시니 <月釋, 1:5>
밥 머그라 물려올 제 <杜諺, 6:14>

위와 같이 鄕歌와 15世紀 文獻語의 願望法語尾 {-ra}가 後接된 '머그라'는 本島方言에서 '머그레'로 實現된다. 그러므로, /r(l)+a/, /r(l)+e/의 一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良'의 表記는 {-re}에 該當할 수 있으리라는 推測을 자아내게 한다.

그래서 前揭한 '此良'의 '良'은格의 表示로서 '此'에 後接된 用法이므로 '至去良·出去良'의 '良' {-ra}와는 分布上의 差異가 있겠으나 {-ra} 또는 {-rai}로 表記될 可能性이 보인다. 더구나 西北方言이나 本島方言에서 {-re/-ra/rɛ}의 維持는 '此良'의 讀法이 /irɛ/에 該當되는 것이라 想定할 수 있을 듯하다. '此良'의 表記가 方言/irɛ/에 遡及되는 形態로 想定되는 것처럼, 例로 든, '此矣·彼矣'의 借字와 方言과도 密接한 關係가 있을 것 같다. 곧 다음의 例에서

本矣吾下是如馬於隱(處容歌)

'矣'字를 {tɒi}音의 表記로 解讀할 수 있는 것은 '矣'字의 上古音이 /t/系의 音이있기 때문이며,[16] 그래서 吏讀文에서도 {tɔi/tɒi}로 表記된 것으로 보인다.

15) 梁柱東, 古歌研究, 博文書館, 1942, pp. 495~496
61) 兪昌均, "鄕歌의 「支」字 表記에 對하여", 藏菴 池憲英先生 華甲紀念論叢, 1971, p. 575

爲乎矣 : ᄒᆞ오더<羅麗>, ᄒᆞ오더<吏便, 儒必>

敎是矣 : 이시되<集成>, 敎是乎矣<吏語>, 敎矣<吏文>

한편 '矣'字는 主格의 表示로서의 {-i}와 處格의 {-ɒi/ŭi}로 借字되며, 自稱의 代名詞 '矣徒(의내)'로도 擴大 使用되어 表記의 多樣性을 보이고 있으나 特히 屬格으로서의 用法이 두드러진 것이다. 이 경우 '矣'字에 先行하는 体言은 '眷耶矣(讚書婆郎歌)', '乾達婆矣(彗星歌)' 等 固有名詞를 비롯하여 '面矣' 等 普通名詞가 두루 排列되고 있어서, 格의 表示가 方言의 格形態와 큰 差를 볼 수 없다. 方言에서 主格·屬格이 {-i}로 나타나고, 自稱의 代名詞는 {이녁}으로 實現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에 例示한 「此+矣/彼+矣」도 '矣'字의 上古音과 吏讀文의 讀音이 {dɒi}인 것으로 미루어 本島方言의 {이디}가 古代語에 遡及되는 語形을 짐작하게 한다. 이리하여 '此良'는 方向代名詞 {이레}로, '此矣'는 處所代名詞 {이디}로 解讀할 수 있는 可能性을 提示함으로써 {-ti}와 {re}의 複合形態인 {-tŭre}의 通時性과 아울러 '此良', '此矣'의 兩表記間에서의 差異가 있었음을 叙述한 셈이 되나, 어디까지나 本島方言의 資料를 爲主로 한 考察이어서 速斷임을 附言하는 것이다.

3.5. 前揭한 것처럼 方言形인 {이레/그레/저레}가 中世國語에서 {이리/그리/저리}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此)}에 後接하는 {리}는 퉁구스, 蒙古, 土耳其語의 沿格 {-li}와도 對應하는 것으로 보며,[17] 日本語의 「アチラ」,「ソチラ」의 {-li}와도 同一關係로 說明되므로 方言의 {-re}는 이를 더욱 補完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이에 追加코자 하는 것은 不定稱 {어드레}와 「トチラ」의 關聯이다. 日本語의 方向代名詞는[18]

近稱	中稱	遠稱	不定稱
コツチ	ソツチ	アツチ	ドツチ
コチラ	ソチラ	アチラ	ドチラ

와 같이 分類되는데, 距離關係는 代名詞에서 모두 {コ/ソ/ア/ド}로 表示되므로 方向의 表示는 {チ(či), チラ(čira)}가 負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그/저/어/아모}에 {-ti/re/tire/tŭre}가 後接하여 形成되는 本島方言의 方向·場所代名詞와 複合形式의 一致를 보이고 있으며, 形態的인 類似性이 {či}와 {ti}는 勿論이고, {čira}와 {-tire/tŭre}에서도 보인다. {-ra}, {-re}의

17) 李基文, 國語史槪說, 民衆書館, 1960, p. 38
村山七郎·大林太郎, 日本語の起源, 東京 弘文堂, 昭和 49年, P. 138
18) 吉田辰次, 新制中等文法 講話, 東京 文憲堂, 昭和 31年, p. 51

親緣關係에 대하여는 이미 提示된 터라 새삼 說明을 加할 必要가 없다고 보아, 여기에서는 {či}와 {ti}의 關聯性만을 살피기로 한다.

例示한 것처럼, 方向의 뜻을 가진 接尾語는 {či}를 共通部分으로 하는 {čira, či}의 兩形이 共存하고 있으므로 方言形의 {이레}의 {-re}와 {či}와의 音韻論的인 거리가 나타난다. 그리고 {-re}는 오히려 日本語의 事物代名詞 {アレ}의 {re}와 形態가 一致한 것이다. 그러나 不定稱의 {어느레}와 {ドチラ(dočira)}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거리를 縮小시키고 있는 것이다. 곧 方言形에 있어서는 方向의 {어느레}가 發話되므로 {-tŭre}와 {čira}는 意味의 一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音韻論的인 面에서 現代 日本語의 タ(ta)行 子音分布를 /ta či ču te to/, /da zi zu de do/로 排列하며,[19] 日本 室町時代의 音價는[20] /ta ti tu te to/, /da di du de do/로 解釋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či/와 /ti/(디)는 音韻의 對應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며, 古事記의 人名表記에 使用한 漢字와 漢字音에 있어서도[21]

ta : 多當陀太
ti : 知智遲治地
tu : 遣豆
te : 帝代
to : (甲) 刀斗度 (乙)登騰

와 같이 表記된다. 그리고, 古代國語의 地名表記의 例에서

知乃彌知縣(尙州化昌)
知六(地育地谷)
知乙峴(陜川)
多知忽(大谷)

知字는 語頭나 語中에서모 두 /ti/로 表記되어 있다.

이와 같은 事實은 {čira}의 /č/가 {-tŭre/tire}의 /t/로 對應함을 말해주는 것이므로, 이 兩語形이 單純한 類似語이거나 또한 偶然한 一致가 아님을 分明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コチ}와 {이디}에서 前者가 方向을 나타내는 {či}가 後接한 데 대하여 後者는 場所를 나타내는 {ti}가 後接하여 各各 語意를 달리하고 있으나, 不定稱의 {어느레/어디레/어디}에 있어서는 {ti}가 方

19) 服部四郎, 言語學の方法, 岩波書店, 1960, p. 288
20) Ibid., p. 319
21) 李崇寧, "新羅時代의 表記法体系에 關한 試論", 논문집 인문과학 제2집, 서울대학교, 1955, pp. 66~88

向의 뜻으로도 後接하므로 {či}와 {ti}는 語意의 部分的 一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兩語形은 各各 語意의 未分化時期를 共有했었으리라 想定할 수 있으며, {čira}가 近·中·遠稱에 두루 後接하는데 比하여 {-tŭre}가 不定稱에 限해서 結合하는 差異는 獨自的 發達의 所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디}의 {ti(處)}와 {이레}의 {-re(方向)}가 結合하여 複合形態인 {-tŭre}로 形成된 것이다. 이는 이제까지 叙述한 根源的인 語意가 文法化한 {-tŭre}와 不定稱 {어드레}에서 分析되는{-tŭre}에서 同質的으로 意識되기 때문이다.

어드레 감수강? (어디 가십니까?)
나신드레 ᄀᆞ르라. (내게 얘기 하라.)
나신드레 오라, (내게로 오라.)

위例의 {어드레}가 「何+處+向方」으로 意識되는 것과 같이, {-tŭre}는 「處+向方」으로 意識되므로 同値의 槪念으로 認識되는 處所·向方의 格形態로 分化 發達된 것이다.

3.6. 以上 Ⅰ·Ⅱ·Ⅲ에서 叙述한 바를 다음에 要約하여 結語를 삼고자 한다.

1) 濟州島方言에 있어서 接尾辭는 國語文法史에서뿐만 아니라 古代語의 再構에 不可缺한 資料인 것이므로 {-tŭre}의 究明은 이에 副應하는 作業의 一環인 것이다.

2) {-tŭre}/-rŭre~-re}는 先行하는 体言에 따라 格의 表示를 달리하고 있다. 即 人稱代名詞·官職名·人名·人倫關係의 名詞에 後接하는 경우에는 與格의 機能으로 쓰여지나, 그 밖의 名詞가 先行할 경우에는 向格으로 나타난다. 後行하는 動詞는 行動動詞에 限定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數詞·事物代名詞가 先行語인 경우는 處格의 機能으로 구실한다.

3) 複合格을 形成하는 {-tŭre}는 先行하는 要素가 되어 加意性을 隨伴하고 있으며, 이에 {-n/ga/raŋ/sa/do} 等 主로 基本格이 後接하여 그 機能을 辨別하고 있어서 後置詞的 性格을 띠고 있다. 그리고 用言의 冠形詞形이 {-tŭre}에 前接하여 機能化한 {-sin(在)dŭre}와 体言的인 {-an}에 後接한 {-anthŭre}가 與格으로 쓰여진다. 이와 같이 結合되는 {-sindŭre/anthŭre}는 {-sindi}, {-anthi}에 後接한 {-re}가 脫落되더라도 亦是 與格의 機能을 갖는다.

4) 形態素의 排列에서 {-tŭre}는 「体言+tŭre」, 「用言+tŭre」의 結合이 可能하나, 標準語

{-tərə}는 「体言+tərə」의 構成이므로 兩形態는 區別이 된다.

5) {-tŭre}는 指示代名詞 {이디/그디/저디}에 依해서 膠着的인 形式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ti}와 {-re}로 分析할 수 있다. {ti}는 方言形에서 {te/ti/tŭ/tə}로 나타나며 15世紀 以後의 文献語에서도 {tɒ/tŭi/tŭ/tə/tɒi}로 나타나서 결국은 形態의 一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形式名詞인 {ti/tɒi/te}가 接尾語로 轉化하여 後行된 形態들이다. 그런데 {ti/tɒi}가 後行하여 形成된 語形으로 {bondɒi/bondi}와 {ndɒi/ndi}가 있는데 이들의 漢字語表記로 '矣'字가 吏讀文에 나타나고, '本矣'나 '此矣' 等이 鄕歌에서 나타난다. '矣'字의 上古音이 /t/系音에 屬한다는 論據를 援用할 때 '此矣'는 {이더/이디/이데}의 表記라 할 수 있겠다.

{-tŭre}의 異形態로 나타내는 {-re}는 文献語의 {이리/이러/어드러}와 方言形의 {이레/어드레/洞內레},그리고 西北方言의 {내레/네레}에서 {-ri/ra/re}로 나타나며, 그 뜻은 方向을 指示한다. 鄕歌에 보이는 '良'字가 /ra/의 表記로 借字된 것처럼 '此良'도 /ira/로 解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繼承한 形態가 方言의 {-re}로 想定할 수 있다.

6) 위와 같이 古代語에 遡及할 수 있는 {ti}, {-re} 等은 日本語의 指示代名詞, 特히 그 不定稱에서 類似性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即 {アチラ/ドツチ}와 {어드레}에서 {-čira}와 {-tŭre}는 方向의 뜻을 나타내므로 語意의 一致를 보이는 것이다. 音韻에 있어서도 /či/는 地名表記에서 '知'/ti/字로 나타나며, 日本 假名字의 タ行子音分布에서 /ti/音으로 實現된다. 國語의 地名에서도 '知' 字가 /ti/로 나타나므로 /či/와 /ti/는 偶然한 一致가 아님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미 밝혀진 國語의 /r/와 日本語의 /l(r)/ 對應說에 依據할 때 {-čira}는 {-tŭre/tire}로 對應하는 形態라 할 수 있는 것이며, {-tŭre}는 方言의 獨自的인 發達形이 아니라 古代語의 繼承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tŭre}는 「場所+方向」과 같은 語彙分布가 주는 同値의 意識으로 處所·方向을 表示하는 格으로 分化된 것이라 생각된다.

Summary

A Study on Suffix of Jeju-Island Dialect

—With Special Reference to {-tŭre} Forms—

Kang Keun-bo

(1) {-tŭre} /-rŭre~-re/ is construed about the expression of the case differently according to a preceding noun. In other words, it is used as the function of a dative case if it is connected after the followings-personal pronoun, noun of a government post's name, a person's name, human relations, etc., in other nouns it is shown as allative, and if it is preceded before demonstrative pronoun it is shown as locative.

(2) {-tŭre} forming a compound form becomes preceding element, and it is followed by {-n/ga/ra} etc., that's, fundamental mainly. And the modifier form of an infleted word forms grammaticized {-sindŭre} by connecting before {-tŭre}.

(3) In connecting of a morpheme {-tŭre} is possible to connect 「noun+ tŭre」, 「inflected word+tŭre」, but as the standard language {-tərə} is limited by forming of 「noun+ tərə」, both forms are discriminated.

(4) {-tŭre} is analyzed into {ti} and {-re}. In dialect form {ti} is shown to {te/ti/tŭ/tə}, in the words of philology after the 15th century it is shown to {tɒ/tŭi/tŭ/tə/tɒi}. As the letter 「叉 : t-」 was used as a sign of a word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此叉」 in Hyang-ga is possible to read as {idi}. {-re} is a dialect form, including {-ri/re/rə}, as 「良 : ra」 is used as a sign of a word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此良」 is possible to read {ire}.

(5) {dočhira} in Japanese and {ədŭre} in Korean are the same meaning. {-čhira} and {-dŭre} correspond each other phonologically.

(6) {-tŭre} is formed by connecting of {ti} meaning place and {-re} meaning di rection, its function is grammaticized to locative·allative.